우암학원 창학 74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SINCE 1952

고품격 명품아파트의 기준! 승원팰리체
FELICE
www.승원건설그룹.com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2283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5월 26일 2024년 7월 1일 월요일

목포·무안도 소멸 위험 '고향 20곳'이 사라진다

전남, 전국서 소멸위험 가장 높아
11개 시·군은 소멸 고위험지역
맞춤형 산단 등 활성화 대책 시급

전남에서만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고향'이 2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청 이전으로 인한 인구 유입 효과를 누렸던 무안·목포조차 올해 새롭게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돼 경북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시·군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십 년간 수도권 집중화를 막는 데 실패한 공허한 균형발전 정책 대신, 지역 특성에 부합한 맞춤형 산단 조성·인구 유입 정책으로 지역 활성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의 권한 이양을 통한 실질적 지방자치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30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내놓은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에 따르면 올 3월 국내 소멸위험지역은 1년 만에 11곳이 늘면서 전체 228개 시·군·구 중 130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멸위험지역은 지역별로 65세 이상 노인 대비 20~39세 여성 비율을 따져 소멸위험지수를 산출한 뒤 분류한다.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가임여성 인구보다 노인 인구가 2배 이상 많아 인구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이 지수가 0.2 미만은 소멸고위험지역이다.

전남의 소멸위험지수는 0.329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전남 여성(20~39세) 인구는 10년 전에 견줘 23.4% 줄었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6.4%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시·군·구 별로도 전남 22개 시·군 중 순천·광양을 제외한 20개 시·군이 올해 소멸위험지역(90.9%)에 포함됐는데,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목포(0.498)·무안(0.475)이 새롭게 진입됐다. 전남 5개 시 지역 중에는 나주(0.426), 여수(0.412)가 2년 전(2022년) 소멸위험에 진입한 데 이어 전남 서남권 거점도시인 목포까지 소멸위험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특히 전남에서는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기반 붕괴로 해석되는 '소멸 고위험지역'(0.2 미만)이 11곳에 이른다는 점에서 사라질 고향 살리기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남에서 소멸위험지수가 가장 낮은 고흥(0.104)의 경우 20~39세 인구(2023년 2952명)가 10년 전인 2003년(9104명)에 견줘 무려 67.6%가 줄었고 보성(0.118)의 20~39세 인구도 10년 전보다 66.3% 감소했다.

소멸위험지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출생 대책, 지방소멸대책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대격변의 시대에 기존 사업들의 변형이나 개별사업 중심의 미시적 접근만으로는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의 발길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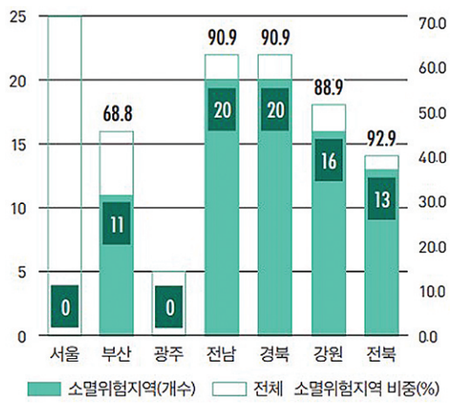
이 연구위원은 "지방에서도 다양한 인재들이 자신의 재능을 꽃피울 수 있도록 산업·교육·주거·복지·문화를 일자리와 연계하는 융복합 전략이 씨줄과 날줄처럼 엮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도 이같은 점을 감안, 청년마을 조성 확대, 전남에서 살아보기,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정책 뿐 아니라 1만원 주택 등 정주환경 개선,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등 출산환경 개선 등 57개 사업에 1739억7600만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한편, 실질적 지방자치권 보장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에 총력을 들이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시도별 소멸위험 시군구 수 및 비중

(단위:개, %)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광주·전남 외국인 노동자 안전한가 ▶6면
위기의 KIA, 이 비 그치면 살아날까 ▶18면
오은영, 14일 광주서 토크 콘서트 ▶20면

'가치 또 같이' … HS효성 공식 출범

조현상 초대 대표 선임
세계 각지 임직원과 소통·나눔

조현상 대표

HS효성이 1일 공식 출범했다. 조현상 신임 대표가 이끄는 HS효성그룹은 출범식을 대신해 세계 각지의 임직원이 참여하는 소통행사와 나눔활동으로 그룹의 첫 출발을 알렸다. 〈관련기사 9면〉

지난 30일 HS효성에 따르면 HS효성은 공식 출범의 첫 행사로 지난달 27일 타운홀미팅 'HS효성 토크 투게더(Talk Together) 시즌 1'을 개최했다. HS효성이 의례적인 출범식 대신 타운홀미팅을 추진한 건 임직원들 간 소통을 강화하고 밝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겠다는 조 신임 대표의 의지가 담겼다고 HS효성은 설명했다.

조 신임 대표는 이날 청바지와 후드집업 차림으로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 그룹의 비전을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임직원들과 소통에 나섰다. 조 대표는 "우리는 고객과 주주에게 훌륭한 가치를 제공하고, 우리의 활동이 온 인류의 미래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우리 HS효성 가족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가치'를 최우선의 DNA로 삼아야 한다"며 "HS효성은 주주와 고객, HS효성 가족, 협력사,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삼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가치경영'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 신임 대표는 HS효성의 캐치프레이즈를 '가치 또 같이'로 명명했다. 임직원들은 조 부회장이 주재하는 행사에 적극 참여해 회사의 비전, 인사제도, 조직문화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질의했는데, 조 부회장의 답변을 들으며 긍정적인 반응과 그룹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고 HS효성은 밝혔다.

조 신임 대표는 "HS효성의 첫 외부 행사를 우리보다 남을 위해 시작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HS효성은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을 초대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HS효성은 HS효성첨단소재,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HS효성홀딩스USA, HS효성더클래스, HS효성토요타, HS효성비나물류법인 등 기존 효성그룹의 잠재력 높은 계열사를 중심으로 재편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광주지역에 100㎜가 넘는 많은 장맛비가 내린 30일 오전 광주시 서구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시민들이 길을 건너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장맛비 오락가락…광주·전남 최대 120㎜ 쏟아진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지난달 29일부터 광주·전남에 시작된 장맛비가 이번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장맛비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다 1일 늦은 오후부터 남해안지역부터 다시 시작돼 밤사이 광주·전남 전지역으로 확대되겠다"고 지난 30일 예보했다.

이번 장맛비는 이번 주내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일부터 2일 까지 광주·전남에 30~80㎜의 비가 내리고, 많은 곳은 120㎜까지 쏟아지겠다.

남해안의 뜨거운 바닷물에 의해 수증기가 다량 유입되면서 시간당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장맛비는 당분간 강약을 반복하며 계속되겠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제주도 부근으로 북상하고, 북쪽의 건조한 공기가 남하하면서 폭이 좁은 강수대가 형성돼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다고 분석했다.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광주·전남 최대 200㎜가 넘는 비가 쏟아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도로가 침수되거나 아파트에 전기가 끊기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다.

기상청 관계자는 "한번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 토사유출, 시설물 붕괴 등의 우려가 있으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